

동아시아 산업통계 전문가 회의 참가 결과 보고

□ 회의 목적

- 동아시아 국가간의 산업통계 개발·비교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 동아시아 산업통계 전문가 모임(EAMS) 구성과 추진방향에 대해 회원국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최

□ 회의 개최 배경

- 최근 아시아 국가간에 경제 협력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서는 동아시아 국가간에 다양한 회의를 통하여 아시아산업분류 표준화 작업의 일환으로 ISIC 수정판 3에 의한 산업분류 3자리 매칭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 이 모임을 토대로 한국과 중국의 참여 협조를 요청하는 등 모임을 확대 추진하면서 아세안+3개국간의 산업통계 비교표를 작성함으로써 아시아 산업분류코드의 신뢰도를 제고토록 노력할 것을 제의

□ 회의 참가국

- 아시아 국가(13개국)
 - 부르나이 다루살람,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중국, 일본, 한국
- 국제기구 및 기타
 - 유엔통계처(UNSD), 유엔SIAP, AMEICC, ASEAN, 케이오대학(일본)

□ 회의 내용(요약)

- 동아시아 국가간의 산업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간의 산업 특성을 고려한 산업통계 비교표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참가국들은 동의를 표명,
 - 이에 따라 선행 작업으로 아시아 국간들만의 표준산업분류의 개발이 필요함을 강조
 - 현재 ISIC 개정판 3에 의해 아시아국간들의 표준산업분류(ASIC) 3자리까지 개발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ISIC 개정판 4에 의해 산업분류 4자리까지 개발을 계속 추진할 예정(2008년 말부터)
 - 이러한 작업 진행에 대해 UNSD에서도 환영을 표명하였음
- 또한 제조업 통계조사에 대해서도 조사 정의의 표준화, 방법론, 통계단위와 관련된 문제들이 중요하며 깊이 있게 연구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
- 차기 회의는 라오스가 AMEICC와 공동으로 라오스 비엔티엔에서 개최할 것을 신청

□ 향후 계획

- 2007년 6월 2차 회의 : 라오스 비엔티엔
- 2008년 말까지 산업분류 3자리까지 매칭 작업 완료
- 2008년 말부터 ISIC 개정 4판에 의해 산업분류 4자리까지 매칭 작업 시작

□ 청장지시사항

- 사기업체와 공동으로 연구하는 것인데 사기업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여한 것인지 파악
 - 동 사업은 일본 경제산업성에서는 총괄하고 있으며, EAMS 사무국도 설치 운영, 사업 예산도 일본 국가예산으로 부담하는 등 대책 사업으로 적극 추진
 - 히타치연구소에서는 각 국의 산업통계 자료수집 및 분석하고 산업분류 표준화 연구를 담당
 - 최근 일본에서는 통계자료의 관리를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경향으로 전환하고 있음
 - 히타치연구소는 정부의 용역사업을 주로 하는 관청산하 연구소 성격을 갖고 있음
- 추후 우리가 참여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대안 검토 필요
 - 동 사업에서는 산업분류의 전문가와 산업통계 전문가를 필요로 하고 있어, 통계청의 ISIC와 KSIC간의 매칭 기술에 대해 관심 표명
 - 통계청은 ISIC와 KSIC 비교표 작성 경험을 바탕으로 아시아 산업분류 표준화 코드(ASIC)작업과 역량구축 프로그램에 동참함으로써 아시아 산업통계 개발·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 통계청에서의 역할분담은 산업통계과에서는 ISIC/ASIC/KSIC 코드에 의한 산업통계 비교 통계표를 작성 및 산업통계 자료를 제공하고, 경제통계실에서는 산업분류 표준화 코드 매칭 기법 연구를 통계정책과와 상호 협력하에 수행
 - 통계청에서는 연구에 참여할 산업분류 전문가, 산업통계 전문가를 지정하여 공동 연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

- 연구 결과물은 어떻게 활용하는지 참여하는 경우와 참여하지 않는 경우 다른 것인지 파악 필요
 - 참여함으로써 아시아 표준화 코드에 의한 산업통계의 공유가 원활하게 되어 각국의 다양한 산업정보 획득이 용이
 - 아시아 산업통계의 작성동향을 파악하여 미래 산업통계 개발을 준비
 - 아시아 국가간 산업통계 비교·분석 자료를 생산하여 산업 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

 - 회의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동아시아 국가들의 산업통계의 다양한 정보를 시의성 있게 습득하기 어려운 점이 발생할 수 있고, 모든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에서 한국만 불참할 경우에는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다소 실추될 수 있다고 생각됨

회의록 번역

1. 제조업통계에 관한 동아시아회의가 2007년 1월 22-23일에 METI(경제산업성) 주관으로 일본 도쿄에서 열렸다. 이 회의에는 동아시아회원국 대표(부르나이 다루살람,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와 중국, 일본, 한국 대표들이 참석했다. 유엔통계처 대표, 유엔SIAP, AMEICC 사무국, ASEAN 사무국, 케이오대학대표도 참석했다. 참석자명단은 첨부1 참조
2. 회의는 일본통상성(METI)의 조사통계국장인 마사히로 호소카와의 개회사로 시작되었는데 그는 모든 참가자에게 호의를 베풀었다. 그는 이회의의 창설에 깊은 감사를 표시했고 또한 2006년 8월 말레이시아에서의 AEM + 3개국 장관회의에서 합의되고 전 일통상부장관이 제안했던 회의에 관하여 언급하였으며 그때 전 장관이 동아시아 국가의 비교 가능한 동아시아 제조업통계 향상의 중요성을 강조했었다. 호소카와는 산업통계의 발전을 지원할 것을 강조한 신조아베총리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개회사는 붙임 2 참조
3. 일본통상성(METI)의 조사통계국장인 마사히로 호소카와는 회의를 주관했다.
4. 회의에서 채택한 Agenda는 붙임 3 참조

(a) AHSOM과 AMEICC WGS의 전체 활동

5. 아세안 사무국은 아세안 지역에서 통계의 발전과 조화를 이룬 성과에 초점을 맞춘 2006년 11월 11-22일 부르나이에서 열린 **AHSOM(ASEAN Heads of Statistical Offices Meeting)** 7에 관한 개황을 제공했다. 사무국은 또한 참가자들에게 모든 ASEAN국가가 AHSOM7에서 ACIC에 서명한 국제 산업표준분류 4판에 근거한 국가 표준산업분류의 비교성을 보장하는 통계표와 3자리산업분류에 해당하는 ASEAN 공동산업분류(ACIC)를 발전시키는 ASEAN 회원국들간의 공동작업인, ASEAN 국가의 통계분류에 조화를 포함한 작업그룹의 현재의 통계상황인, AHSOM 주관의 총체적인 통계발의에 관하여 간략히 설명함.

6. ASEAN 사무국은 비교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EAMS에 대한 국제표준분류 4판의 4자리수에 관한 제조산업자료의 필요성을 제공하는데 동의한 국가들인 AHSOM7에서 결정된 회의를 설명하고 EAMS를 구성하기 위한 발의를 환영했음. ASEAN 사무국은 또한 통계분류의 조화(비교)에 관한 EAMS와의 특정한 공동 작업을 수행하기를 제안했다. 회의는 AHSOM에 의해 서명됨에 감사를 표시했으며, AHSOM과 협력으로 비교성문제에 대한 방법을 찾는 데 동의함. ASEAN 사무국의 자료는 붙임4에 있음

7. AMEICC(AEM-METI Economic and Industrial Cooperation Committee) 사무국은 전체적인 AMEICC구조와 WGS의 조직을 포함하는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함. AMEICC 사무국은 WGS가 ASEAN+일본에서 ASEAN+3개국으로 산업통계의 국제비교의 과제를 위한 목표지역을 확대시키는데 동의함에 대한 회의에 대해서 설명함. AMEICC사무국의 자료는 첨부5에 있음

(b) 회의 배경

8. EAMS 사무국(METI)은 회의의 배경, 이유, 그리고 회의 개최에 대한 준비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AMEICC WGS, AHSOM과 EAMS들간의 상호연관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회의는 AMEICC WGS에서 회의(EAMS) 개최를 제안한 것이 2006년 8월 말레시아에서 개최된 AEM+3 장관회의에서 동의된 것이라는 데 주목했음. EAM 자료는 붙임6 참조

(c) 작업계획과 위임사항 채택

9. 일본은 작업 프로그램과 지난 12월부터 회원국가들에 의해 만들어진 제안을 조화시키는 위임사항 초안에 관한 회의를 설명함. 회의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말레시아가 설명했듯이 국제표준분류 4판의 이행단계와 각기 다른 상황을 인식했지만 먼저 AHSOM에서 동의된 2008년 말에 시작될 4자리에 국제표준분류 4판에 근거한 제조산업자료를 제출하기로 동의함. 게이오대학의 마사이코 시미주교수는 신뢰성을 정의할 필요성에 대해 역설함. 파울 창박사는 프로그램의 설립을 이행 능력의 중요성에; 특히 산업틀을 발전시킬 국가들의 도움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에 대해서 강조함. 다음 회의에서 파울 창박사와 시미주교수에 의해 강조된 논제에 대하여 토의할 것을 동의하며 모든 제언에 기록함. 회의에서 채택된 작업그룹 위임사항은 붙임 7 참조

(d) 변화의 세계에 제조업통계와 비교성 유지

10. 유엔통계청의 폴칭 박사는 첫째, 유엔통계청의 활동과 새로운 과제에 관해서 요약보고를 하고, 동아시아지역(ASEAN +3)에서 국제적 비교성있는 제조업통계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EAMS의 창설을 환영했다. 그는 제조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확인하고, 미래에 제조업 통계 발전에 즈음하여 알려져야 할 필요성이 있는 문제에 관하여 보고함. 마지막으로 그는 지역의 제조산업의 성격을 반영하는 중요성과 제조산업의 범위에서의 의견교환을 위한 포럼으로서 EAMS의 결정적인 역할도 강조하였음.

11. 그는 또한 유엔통계청이 EAMS의 노력에 대해 치하를 언급하였고 지역의 성격을 나타내는 4자리 수준의 제조업통계의 구성에 대한 모델로서 역할을 할 EAMS에 기대를 표시함. 유엔통계청의 발표문은 첨부 8 참조

12. 회의는 폴칭에 의해 제시된 이슈를 인식하고 이 제안에 그의 인식에 대한 감사를 포함

(e) 동아시아의 제조업통계의 지역표준의 필요성

13. 게이오대학의 시미주 교수는 동아시아 지역경제를 분석할 목적으로 각나라에서 제조산업의 생산활동을 비교할수 있는 정부통계조직을 요구했음. 동아시아지역의 공동산업분류(제조산업)는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조직되어야 하며 또한 시미주교수는 NAICS의 경우를 언급하며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함.

14. 동아시아에서 지역의 성격을 반영하는 산업분류를 말하는 중요성에 역점을 두면서, 교수의 제안은 4자리 수준의 국제비교가능한 제조업통계의 개발의 중요성을 제안한 교수는 반항을 일으켰다. 그는 또한 ASEAN+3(일본, 중국, 한국)국의 국제비교가능 제조업통계의 개발이 결정적이고 이는 아시아지역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5. 시미주 교수는 제조업조사에서 사용되는 정의의 표준화, 방법론, 통계단위와 관련된 문제들이 중요하며 깊이있게 연구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문제들은 다른 발표자들에 의해서도 강조되어 짐. EAMS는 작업프로그램에서 이런 문제들을 포괄할 것임.

16.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제조업통계(4자리 수준)는 반드시 구성되어야 한다는 시미주교수의 메시지는 이 회의에서 표명됨. 발표내용은 첨부물 9

(f) 제조업통계의 비교성을 증진시키는 접근법 - 국가 SIC 발전으로 부터의 전망

17. 통계분류의 전문가인 Pin Pin Quah 는 산업통계의 국제적 비교에서 향상방향을 강조함.

18. Pin Pin Quah 는 국제표준분류 3판에 근거한 현국가 SIC에 바탕을 둔 ASEAN회원국가들간의 자료비교를 하는데 문제점들을 이야기 함. 그녀는 국제표준산업분류4판에 근거한 국가표준산업분류의 발전의 중요성 및 공동이해를 수립하고 협력적인 틀을 세우기 위한 ASEAN 회원국들의 요체에 관해서 강조함.

19. 동아시아의 ACIC/ISIC/NSIC 제조업분야의 4자리 산업분류의 동아시아 버전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핀핀의 제안이 회의에서 표명되었음.

(g) EAMS 회원국에서 제조업통계의 국제비교성

20. METI 연구팀인 구로다 박사는 2002년부터 AMEICC WGS에 의해 수행된 회원국가의 제조업통계의 국제비교성에 대한 가능성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함.

21. 그는 수집된 4자리숫자의 제조업통계 자료의 저급한 국제비교성을 지적했으며 다음 4가지 문제점을 이야기함.

- (1) 실제 숫자가 적용될 때 국제비교성이 떨어짐
- (2) 지역에서는 4자리수준의 조화/공동산업분류로 발전시켜야 함.
- (3) 개발단계에서 차이점은 제조업통계가 만들어진 범위에 영향을 받기 때

문임

(4) 산업통계와 연관된 정의와 조사방법에서 회원국들간의 차이점의 존재

22. 구로다 박사는 지역특성을 반영하고 있고, EAMS의 활동에 결과를 합할 의도로 ACIC를 이미 발전시킨 AHSOM과 협력은 중요하다고 지적함. 그는 또한 EAMS는 위에서 언급한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한다고 했고 산업분류 (국제산업분류 4판에 근거)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것을 고려했으며 EAMS는 센서스(경제센서스, 기초센서스 등) 자료를 획득해야 한다는 것을 고려했음.

23. 연구 자료는 또한 동아시아에서 제조산업통계(4자리수)의 확립의 중요성과 제조분야에서 4자리 분류의 ACIC/ISIC의 동아시아판의 개발의 중요성을 보여줌. 구로다박사의 발표는 회원국들에게 상당히 유용한 언급으로 인식됨. 부루나이,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시아, 필리핀은 각각의 나라에서 산업통계의 현재 상황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 파울창 박사는 통계에서 국제비교성을 확립하는 것은 큰 일이며 이 오늘의 회의는 중요한 과업의 시작단계라 말했다. 그는 또한 통계에서 국제비교성을 이룩한 EUROSTAT 과 같은 경제 기구로부터 EAMS는 배워야 한다고 말했음. 시미주교수는 강하게 그의 의견에 동조했음. 발표문은 첨부물 11 참조

(h) 다음회의의 날자, 장소 안건

24. 라오스는 AMEICC/WGS와 공동으로 2007년 5월이나 6월에 라오스의 비엔티엔에서 2차 EAMS 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함.

25. 이번 회의에서는 라오스의 개최 제안에 감사를 표하며 2차 EAMS 회의가 라오스에서 열리는 것에 동의함.

26. 이 회의는 다음회의의 잠정의제에 대한 줄거리를 발표했는데 이는 ‘국제표준분류 3판에 근거한 제조업통계의 비교 테이블의 평가’, ‘시험연구로서 제조산업분류의 시작’, 회원국에서의 ‘제조산업분류의 현상태 고찰’, ‘역량구축’, 회의에서 제안된 것으로서의 ‘신뢰성’ 그리고 정의의 표준화, 방법론, 제조업 조사에서 사용되는 통계단위와 같은 선행 과제가 될 작업프로그램 등이다.

27. 회의는 회의를 위해서 베푼 친절과 훌륭한 진행 등에 대해서 일본정부에 감사를 포함.

28. EAMS 사무국은 참가자들에게 EAMS 참가자 명단을 제공했음. 최신 EAMS 접촉자 명단은 첨부 12 참조